



14면

코로나19 상황 속
결식아동에 '희망' 전달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음 12월 16일) 제2707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형 착한 선결제, 민간으로 확산

시, 국민연금공단·전주페이퍼 등과 동참 협약

26일 기준 착한 캠페인 홈페이지 인증샷 1500여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공공부문에 이어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전주시는 2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성호일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상태봉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고성욱 휴비스 전주공장장, 부정필 전주페이퍼 인사총무팀장, 임동욱 유니온시티 대표이사, 홍성환 비나텍 상무이사, 임종식 하이트진로 전주지점장, 서한국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이진산 농협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정경철 북전주세무서장, 장영철 전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

참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업과 기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26일 오전 9시 기준 착한 캠페인 홈페이지(good.jeonju.go.kr)에 올라온 인증샷이 1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공부문 임직원에 이어 각 기업과 기관들의 직원들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 민간으로까지 참여를 유도해 캠페인 확산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29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통장협의회, 국제로타리3670지

구, 국제라이온스협회전북지구,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자율방범대 등 11개 민간·자생단체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함께해' 챌린지를 추진한다. 11개 단체 소속 총 300여개 단체 9400여명은 단체별 달성목표금액을 정한 뒤 소속 단체 내에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다. 예컨대 통장협의회가 달성목표금액을 정하면 중앙동 통회장이 참여한 뒤 진북동 통회장을 지목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70여 일 동안 진행된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폐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그간 10%의 캐시백이 지급돼왔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혜택이 한시적

으로 20%까지 주어지며 월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 전주시설관리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출연기관과 산하단체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선언식을 가졌다. 이어 25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공체 정신과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선한 경제활동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7일 전주 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이 열렸다.

생태문명시대 선도... 삼락농정 1조4140억원 투자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

▶ 관련기사 3면

농업 공익적가치·스마트밸리 등 농생명 5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전북도가 '삼락농정' 2021년에는 1조 4,140억원을 투자하고, 농생명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도내 농생명 핵심 현안인 ▲농업재해보험과 농업 공익적가치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축산악취 개선과 방역 ▲ICT농축산 ▲생태문명시대 선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실현하

고, 농생명산업의 더 높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743억원(농작물 600, 가축 143)을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품목 선택권을 확대한 최저가격보장제 33억원과 양봉농가·어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농민공익수당 등 9개 농업공익직불금 4,929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병세 중점관리 농가를 확대하고(245개소), 퇴액비화, 악취저감시설 등 8개 사업을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통합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상시 운영(14개소), AI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75호),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인접 시·군 반출입 금지 조치 확대(35개), 구제역 항체양성을 제고(91.9%)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수출전문 온실신축 등 3개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하고, 축종별 스마트 축산모델도 구축(58억원)한다. 농작업대행 정비, 여성친화형농기계,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주산지 일관기계화 등에 85억원을 투자해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한다.

도농융합상생 협력의 생생마을 플러스사업(4.2억원), 1시·군 1나물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을(5억원)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는 농촌협약(최대 300억원)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한다.

최저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제고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과 농생명산업의 디지털화, 빈틈없는 방역체계, 도농융합상생 생태문명시대 선도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이 한층 더 높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달라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학생 부담 줄이고 선택과목 폭 넓히고

고교학점제 도입 따라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선택 등

수능 EBS연계율 축소
과목 특성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 예정

정시 선발비율
전년대비 1.3% 늘려

약학대, 6년제로 충원
도내에서는 우석대 40명
원광대 40명·전북대 30명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
석차 등급에서 성취도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변화된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과목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2015년 문·이과 구분 폐지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전형 실시하는 수도권 41개 대학 중 80.5%인 33개교가 교과 100%로 선발하며 그 외 면접, 서류 등을 포함해 모집한다. 특히, 2+4체제로 선발했던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6년제로 신입생을 뽑는다. 현재 32개 대학에서 수시 923명, 정시 655명 등 총 1,578명 선발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우석대 40명, 원광대 40

명, 전북대 30명을 뽑는다. 다만, 숙명여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약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석차 등급에서 성취도로 적용된다. 학생부위주(교과)전형 시행하는 전국 175개 대학 중 진로선택 반영 대학이 76개 대학(43.4%)에 달한다. 진로선택과목 대학별 반영 방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희대, 연세대 등 단순 환산 점수 반영, ▲건국대, 한양대 등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이화여대 등 원점수, 평점을 고려한 환산점수, ▲고려대, 서강대 등 성취도 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 전북대 등 성취도를 점수화해 가산점으로 반영, 동국대, 성균관대 등 정성평가 등이다. /장은성 기자

에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국어 선택과목은 언어와매체와 화법과작문이며, 수학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이다.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예전과 같이 상대평가로 실시되지만, 절대평가 과목은 기존 영·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과목이 포함된다.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시 선발 비율이 2021학년도 대비 소폭(1.3%) 증가된다. 또한 교육부의 '내일 공정한 기회'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학생부교과 전형을 기존 7.8%에서 11.3%까지 확대된다.

진로선택과목 대학별 반영 방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희대, 연세대 등 단순 환산 점수 반영, ▲건국대, 한양대 등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이화여대 등 원점수, 평점을 고려한 환산점수, ▲고려대, 서강대 등 성취도 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 전북대 등 성취도를 점수화해 가산점으로 반영, 동국대, 성균관대 등 정성평가 등이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